

【 해외금융뉴스: 미국】

AIG, 생존을 위한 그룹 분할

- 美정부는 5개월에 걸친 3차례의 구제금융 투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AIG를 회생시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AIG그룹을 최소 3개 부문으로 분할하는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 - AIG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형태를 유지하겠으나, 미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3개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매각할 경우 90년 역사의 AIG 글로벌 보험금융그룹은 해체될 전망이다.
 - 또한 국유화 절차를 밟는 Citi그룹 등 다른 금융그룹에도 동일 방식의 구조조정과 해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.
 -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미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AIG의 80% 지분을 그룹 분할시에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임.
- 미정부의 이와 같은 급박한 응급처방은 AIG의 2008년 4/4분기 손실이 6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이루어짐.
 - AIG의 손실 확대는 투자손실이 예상을 상회함과 동시에 AIG의 주요 사업부문에 대한 매각이 지연된 것이 원인임.
 - 美정부는 금번 구조정안과 관련하여 AIG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기존의 5년 만기 600억 달러 대출을 40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발행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.
- 3개의 사업부문은 아시아지역 사업부문, 생명보험 국제사업부문, 미국 개인 보험 영업부문으로 분리될 전망이며, AIG의 기타 사업과 불량 자산은 제4의 사업부문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음.
 - 한때 200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AIG 자산 중 가장 가치가 높았던 아시아지역 사업부문(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)은 현재 매수의향이 미온적이 것으로 나타남.
 - 이는 보험시장과 신용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매수가 늦추어지는 상황임.
 - 미국 개인 보험 영업부문은 한때 Zurich Financial에 매각되는 상황이었으나 매수자가 자금 확보에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
 - 생명보험 국제사업부문인 American Life Insurance Company는 현재 50여 개국 이상에 지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음.
 - 미국 생명보험 사업부문과 해외 손해보험 사업부문은 3개 사업부문으로 흡수되거나 분리 매각될 전망이다.

(Financial Times 2/26)